

(다) 기상재해

인삼의 기상장해에는 겨울철의 폭설과 저온, 여름철의 고온, 그리고 바람과 침수 피해 등 종종 발생하게 된다. 이들 피해의 원인과 대책은 표 30과 같다.

표 30. 기상장해의 유형별 증상과 대책

기상재해	원인 및 증상	대 책
폭설	폭설로 인한 시설물 파손 해빙기 과습에 의한 피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표준규격 자재를 사용한 해가림 설치 - 월동기 차광망을 걷어 시설물 피해 예방 - 누수방지 및 배수시설정비 - 피해삼포는 조속히 복구하며 고랑 및 배수로 정비를 철저히 하여 부패, 병전염 등 2차 피해를 최소화
저온 (냉해)	급격한 저온으로 인한 냉해 저온과 고온의 교차로 인한 부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채굴한 묘삼은 되도록 빨리 이식 - 종자 파종 후 복토 및 부초하고 출아되기 전에 해가림시설 설치 - 발아기에 5℃ 이상에서 생장이 되도록 유도, 울타리나 방풍망을 설치
바람	해가림 시설 파괴 식물체 도복 및 손상 2차감염에 의한 병해 직사광선 피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표준 해가림시설을 준수하고 규격품 자재를 써서 내구연한을 높이는 것이 최선 - 바람이 심한 곳은 방풍 울타리를 설치 - 무너진 인삼포는 해가림시설을 철거, 재설치 후 기상이 회복되면 병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
고온	고온으로 인한 생육정지 모세근 탈락 및 세근 건조 잎의 가장자리가 타들어 가면서 식물체 고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표준해가림 설치로 시설내 온도상승 억제 - 통로 및 측림, 후림을 설치하여 통풍 유도 - 고온기에는 면림을 설치하고 흑색 2중직을 추가로 피복하여 지나친 광투과 억제 - 예정지 관리 시 토양염류 농도를 감소시켜 세근이 잘 발달될 수 있도록 토양환경을 조성 - 건조한 토양에서는 관수
침수	집중강우에 의한 피해 배수불량, 누수로 인한 과습으로 적변, 조기낙엽, 뿌리부패, 결주 등 발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해가림 설치 시 우량피복자재를 사용하여 누수방지 - 장마기 배수로 관리 철저 - 침수 시 빠른 시간에 배수되도록 조치하고 물이 빠지면 경엽에 묻어 있는 이물질 제거 후 2차 병해방지를 위해 약제 살포